

인플레이션 經濟學

金 學 硯

〈延世大學校教授·經博〉

I

인플레이션은 失業과 함께 經濟學의 二大難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만큼 이 문제에 대한 關心은 일찍부터 있었다. 1930년대에 전세계를 휩쓸었던 失業의 문제는 케인즈의 經濟學 출현으로 그 해결을 보는 듯 하였다. 후기 케인지언들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었다. 이와같은 낙관론은 戰後까지 계속되었는데 이時期는 아직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經驗하지 않고 있었다.

1970년대 초에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의 등장은 경제학자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인식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失業과 동시에 출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인플레이션과 失業의 동시 출현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지만, 이에 대한 경고는 전부터 있었다.

失業이건 인플레이션이건 어느 한 時期에 하나씩 獨立的으로 등장하는 경우란 이제 옛이야기에 불과하게 되었다. 경제학자의 경제문제에 대한 새로운 悲觀論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經濟學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20년대에 어빙·윅셔(Irving Fisher)는 이미 인플레이션과 失業 사이에 어떠한 關係가 있다는 것을 發見하였지만, 그의 發見은 당시의 經濟學者들의 關心을 끌지 못하였다. 그것은 아

마도 때마침 밀어 닦친 大恐慌의 문제로 사람들의 關心이 다른 곳에 쏠렸기 때문이었다. 어쨌던 윅셔의 發見은 오랫동안 잊혀졌다. 1950년대末 필립스(A. W. Phillips)는 어빙·윅셔의 發見을 再發見하였다. 그는 약 100년간의 英國 統計를 사용하여 失業率과 名目勞賃率의 上昇率 사이에는 逆關係가 存在한다는 것을 검정하였다. 필립스의 再發見은 윅셔의 경우와는 달리 곧 사람들의 關心을 끌었다. 그 理由는, 당시의 케인지언들에게 있어 物價水準과 勞動量과의 關係를 規定지워 주어야 하는 소위 「빠진 方程式(missing equation)」의 役割을 필립스가 再發見한 方程式이 대신 해줄 수 있으리라고 期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次元에서 인플레이션과 失業率 사이에 逆關係가 存在한다는 事實에 重要的 意味를 부여한 사람은 폴·사무엘슨(Paul Samuelson)이다. 그는 필립스가 發見한 內容 가운데 名目勞賃率의 上昇率 대신에 物價上昇率을 사용하여 失業率과의 關係를 再照明하였다. 사무엘슨에게 있어서 필립스曲線의 意味는 後期 케인지언에게 「빠진 方程式」의 役割을 해주는 것이상이었다. 즉 어느 한 時期에 어떤 狀態下에서 失業과 인플레이션을 同時에 줄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단 어떤 狀態에 이르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면 높은 失業率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失業率을 낮추려 하면 높은 인플레이션率이 불가피해진다. 말을 바꾸면, 어떤 狀態下에서는 物價安定의 價格은 失業이고, 完全雇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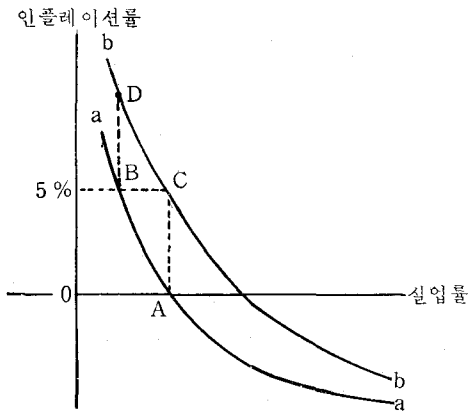
特別企劃

의 價格은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뜻이다.

어떤 狀態 下에서 이와같은 現象이 일어나는가? 밀튼·후리드만(Milton Friedman)에 의하면 사람들 사이에 物價上昇期待心理의 形成이 이와같은 상황을 만든다고 한다. 밀튼·후리드만은 일찌기 失業과 인플레이션이 머지않아 同時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는 이와같은 現象을 「경기후퇴적 인플레이션(recessionary inflation)」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다.

物價期待心理가 인플레이션과 失業에 重要한 變數라는 것은 <그림-1>에서 說明하고 있다. <그림-1>에서 A점은 物價가 安定되어 그 上昇率이 零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A점은 完全雇傭을 나타내는데 이때의 失業率(가령 4%)은 自然失業率이 된다. 이 A점을 通過하는 曲線 aa는 필립스 曲線이다. 경제가 A점에 있을 때, 物價는 安定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의 物價上昇期待率도 零이 된다.

이제 어떠한 政策이나 外部的 變動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였다고 하자<이것은 일종의 경기팽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률이 가령 5%로 오르고 失業率은 줄어 드는데, 이 狀態가 지속되면 사람들의 期待上昇率도 修正되어 5%로 되고, 필립스 曲線은 더 이상 aa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어 bb로 移動하게 된다. 이때 物價期待心理의 上昇은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켜 경제를 D점으로 이동시키거나,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있고 失業을 늘려 경제를 C점으로 이동



<그림-1>

시키거나, 인플레이션과 失業에 모두 영향을 주어 경제를 점 D와 C 사이로 이동시키거나 한다. 가령 C점으로 이동시켰다 하면, A점과 비교해 볼 때 失業率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率만 5% 오른 셈이 된다. 따라서 曲線 aa와 bb의 위치는 物價上昇期待心理의 水準에 따라서 결정된다. 두 曲線 모두 인플레이션과 失業率 사이의 逆關係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同一하지만, 期待心理의 差異로 두 曲線이 서로 다른 위치에 처하게 된다.

두 曲線을 비교해 볼 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價格(失業率의 減少로 評價한)이 다르다. 曲線 aa의 경우가 曲線 bb의 경우보다 더 싸다. 따라서 같은 필립스 曲線이라 해도 원점에 가까이 위치할 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狀態가 되기 위해서는 物價上昇期待心理의 水準이 될 수 있는대로 낮아져야 한다.

物價上昇期待心理가 인플레이션과 失業에 重要한 變數라는 것을 發見한 이후 이에 대한 研究는 활발하다. 그러나 研究는 주로 그와같은 期待心理가 어떻게 形成되는가에 置重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失業을 둘러싼 政策을 研究하는 사람들은 주로 期待心理를 어떻게 解消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에 關心을 갖는다. 本論文은 이에 대한 새로운 理論을 소개한다. 다음에서 所得政策(IP=Incomes Policy), 租稅政策(TIP=Tax-based Income Policy), 市場政策(MAP=Market Antiinflation Plan)을 차례로 說明하겠다. 이들 政策의 目的은 한결같이 어떠한 理由로 物價上昇期待心理가 形成되어 失業과 인플레이션에 바람직하지 못한 影響을 줄 때 어떻게 期待心理를 減少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가에 있다.

II

所得政策은 美國에서는 닉슨行政府가 韓國에서는 第3共和國이 한번 시행한 經驗이 있다.

所得政策의 核心은 「勞賃率가이드-라인」인데, 이것의 骨字는 勞賃率의 上昇을 生産性的 上昇과 一致시킨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가이

드-라인」을 제시한 經濟學者는 제랄드·콜(Gerald Colm)과 아바·러너(Abba Lerner)이었는데 時代에 따라 그 內容은 점진적으로 修正되었다.

그러나 이 政策은 失敗하였다고 볼 수 있다. 政策當局者는 指針을 作成할 때 勞賃率의 上昇範圍를 平均으로 한 것이 아니라 最底水準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企業은 빠른 技術革新과 느린 製品價格의 下落으로 利潤을 增加시키는데 勞賃率은 「가이드-라인」에 묶여서 勞動者들 눈에는 이와같은 現象이 不公平하게 보였다. 이러한 狀況 아래에서 所得政策은 제대로 실시될 수 없었다. 원래 소득정책은 技術革新의 速度와 같은 速度로 製品의 價格이 떨어지는 것을 前提로 勞賃의 平均上昇率을 定했어야 했다. 더우기 「가이드-라인」의 內容을 노동의 생산성이 아니라 총생산성(total productivity)으로 기준하여 定했다면 效果가 더 컸을 것이다.

만일 소득정책을 成功的으로 遂行한다면 노동의 上昇은 「가이드-라인」이 定해진 바대로 될 것이고 따라서 勞賃上昇期待心理의 水準도 定해진 水準을 넘지 않을 것이다.

所得政策의 극단적인 경우는 노동과 價格을 일정기간 동안 동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物價와 노동은 強制로 安定되고 物價期待心理은 없어져 필립스曲線은 원점 근처로 下向移動하게 되는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III

租稅政策(TIP = Tax-based Incomes Policy)은 윌리치(Henry Wallich)와 와인트롭(Sidney Weintraub)에 의해 제안되었다. 인플레이션은 公害와 같은 一面이 있다. 원래 公害를 租稅政策으로 다스린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피구(Arthur Pigou)에 의한 것이었는데, 윌리치와 와인트롭은 本질적으로 이에 착안한 것이다. 이들은 우선 역사적으로 물가와 노동 사이에 매우 安定된 關係가 있음을 發見하였는데, 이를 土臺로 物價는 勞賃에 依해서 決定된다고 假設을 세웠다. 이에 의하면 物價의 安定은 勞賃의

安定에 있다.

勞賃의 安定이 物價의 安定을 수반한다는 假設이 맞는다면 租稅政策은 勞賃을 上昇시키는 企業에게 租稅로써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그 內容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政策은 어떤 企業이 稅金을 支拂하고서라도 勞賃率을 上昇시키고 이를 製品價格에 反映시켜 이익을 본다고 할 때 價格이 上昇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批判되어 왔다. 즉 $t+1$ 期の 製品의 價格은

$$P_{t+1} = P_t(1 + \pi_t^*) + T(P_{t+1} - P_t)$$

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P_{t+1} = t+1 \text{ 期の 製品의 가격}$$

$$P_t = t \text{ 期の 製品의 가격}$$

$$\pi_t^* = t \text{ 期の 物價上昇期待率}$$

$$T = \text{租稅率}$$

을 나타낸다. 물론 앞식은 勞賃率과 價格과 일정한 함수關係가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할 때 가능하다. 앞식은 다시

$$P_{t+1} = \frac{P_t}{1-T}(1 + \pi_t^*) > P_t(1 + \pi_t^*)$$

가 되어 $0 < T < 1$ 일 때, 租稅를 부과한 만큼 價格은 더 오르게 되어 租稅는 인플레이션을 抑制하는 效果를 잃게 된다.

그러나 $T=1$ 이면, $\pi_t^*=0$ 이 되고 또한 $P_{t+1} = P_t$ 가 되어 租稅政策은 期待心理을 없애고 價格安定의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TIP의 成功여부는 物價와 價格 사이에 歷史的으로 安定的인 關係가 있을 때 그 因果關係에 있어서 과연 노동이 物價를 決定하느냐 또는 이와 反對로 物價가 노임을 決定하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IV

所得政策과 租稅政策은 앞서 보았듯이 그 시행이 市場機構가 아니라 法律機構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政策의 成功여부는 이 法律機構가 얼마나 사람들의 經濟的 理解와 調和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하여 市場政策(MAP)의 핵심은 物價

特別企劃

上昇期待心理를 추방하기 위하여 그 시행이 市場機構의 自律的 運用原理에 依存하는 것을 內容으로 한다는 것이다.

MAP은 러너(Abba Lerner)에 의해서 고안되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폐당국은 “적당한” 통화량을 유지한다.
둘째, 화폐당국은 「MAP증권」을 발행하여 각 企業에게 前年度 純賣出額과 同一額의 MAP증권을 無料로 供給한다. 각 企業에게 供給한 MAP증권의 총액은 GNP의 價値와 같아진다. GNP의 가치는 노동자에게 지불한 노임소득과 자본에 지불한 자본소득의 합과 같으므로 결국 MAP증권의 價値는 이들 노임소득과 자본소득의 합과도 같게 된다.

세째, 한 企業이 한명의 노동자를 추가 고용하면 이 노동자의 노임소득에 해당하는 MAP증권이 추가적으로 무료 공급된다. 이때 이 노동자의 노임소득은 그가 전직장에서 받은 가치액으로 계산한다. 반대로 勞働者가 줄어드는 企業은 그에 해당하는 額數만큼 MAP증권을 줄여야 한다.

네째, 新투자가 일어나서 자본이 증가하는 企業에게 그에 해당하는 MAP증권이 무료로 供給되고 줄어드는 企業은 MAP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섯째, 成長하는 經濟에 있어서는 MAP當局은 각 企業에게 평균 成長率에 해당하는 增加率로 MAP을 무료로 공급한다.

여섯째, 모든 企業들은 항상 純賣出額과 MAP證券額과 같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새로운 企業이 등장하면 MAP 당국은 위와같은 方法으로 無料로 MAP증권을 供給한다. 기존 企業이 퇴장하면 MAP당국은 MAP증권을 회수한다.

위와 같은 狀況 下에서 가령 한 企業(企業A)이 將來에 대한 豫想에 根據하여 자신의 商品의 價格을 上昇시키려고 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 이외의 企業들은 기존의 價格을 유지한다고 하고 說明의 단순화를 위하여 각 기업의 生産량은 變化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企業A가 商品의 價格을 올린다는 것은 純賣出額의 증

〈表-1〉 경제지표변화률

물가 상승률	요소 증가률	생산력 증가률	GNP 상승률	명목GNP 상승률
6%	2%	2%	4%	10%

가를 뜻하고 그 증가분만큼 MAP증권을 추가적으로 수요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企業들은 모두 純賣出額과 MAP증권額이 一致하기 때문에 MAP증권시장에서 供給은 없다. MAP증권의 價格은 上昇하게 된다. MAP증권의 價格이 上昇하면 需要者는 不利하게 되고 供給者는 有利하게 된다. 그 결과 수요는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物價上昇期待心理를 포기함으로써 商品의 價格을 낮추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예로써 說明해 보자. 물가가 年 6% 상승하는 경제에서 노동력과 자본이 2%씩, 各 生産要素의 生産력이 2%씩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表-1〉이 성립한다.

물가가 年 6%씩 상승하므로 物價上昇期待率도 6%로 形成된다고 하자. 企業들은 곧 MAP증권을 10%씩 추가적으로 수요하게 되는데 이중 4%는 MAP당국에서 無料로 供給되지만 나머지 6%는 MAP증권시장에서 초과수요로 나타나게 된다. MAP증권의 價格은 상승하게 되고 이것은 MAP증권의 수요를 줄이게 한다. MAP증권수요는 4%가 될 때까지 계속 줄게 되고, 企業들의 MAP증권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物價上昇期待率을 修正하게 하여 商品의 價格을 가능하면 낮게 策定하게 한다.

MAP제도의 단점은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고 MAP제도의 운용은 행정력에 크게 달려 있다. MAP당국은 企業의 동태를 정확히 보고받아야 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MAP증권시장을 원활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능력이 갖추어지면 MAP증권제도는 다른 인플레이션 퇴치방법보다 그 효과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MAP제도는 다른 제도와 달리 강제성이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성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